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5년 2월
석사학위 논문

Grimm 동화에 나타난 의붓 어머니상

조선대학교 대학원
서양학과 (독어독문학전공)
이 선 희

Grimm 동화에 나타난 의붓 어머니상

Die Muttersgestalt im Brüder Grimms Märchen

2015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서양학과 (독어독문학전공)

이 선 희

Grimm 동화에 나타난 의붓 어머니상

지도교수 박 대 환

이 논문을 독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서양학과 (독어독문학전공)

이 선 희

이선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김 옥 선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박 대 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윤 영 범 (인)

2014 년 11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Zusammenfassung	ii
I. 서론	1
II. 그림동화의 형성과 그 서술적 관점	4
1. 그림형제의 동화 수집 배경 및 과정	4
2. 서술자로서의 그림형제	7
III. 부정적 모성상으로서의 계모의 의미	12
IV. 계모의 양상과 모티브	17
1. 시기와 질투	18
1.1. 백설공주	18
1.2. 하얀신부 검은신부	26
1.3. 신데렐라	29
2. 차별	35
2.1. 숲속의 세 난장이	36
2.2. 흘레 할머니	40
3. 폭력	44
3.1. 헨젤과 그레텔	44
3.2. 오누이	48
3.3. 노간주나무	49
V. 결론	54
참고문헌	58
참고논문	59

Zusammenfassung

Die Muttersgestalt im Brueder Grimms Märchen

Lee, Seon-Heui

Advisor : Prof. Park Dae-Hwan, Ph. D.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Das Thema dieser Arbeit ist die Figur der Stiefmutter in den Kinder- und Hausmärchen der Gebrüder Grimm. Eine "Stiefmutter" ist eine Frau, die für die Kinder ihres Ehemannes sorgt, ohne selbst ihre leibliche Mutter zu sein. Bei den Gebrüdern Grimm, hat die Stiefmutter immer eine schlechte Beziehung mit der Hauptfigur. In allen 15 verschiedenen Geschichten, in denen eine Stiefmutter vorkommt, misshandelt sie Stiefkinder.

Die Formen der Stiefmutter sind : 'Die Schwiegermutter als Stiefmutter', 'Stiefmutter bevorzugt die eigene Tochter' und 'von Mutter zur Stiefmutter'.

Ihre Motive sind 'Streben nach Macht und Reichtum', 'Bosheit' und 'Neid'.

Im Märchen repräsentiert die Stiefmutter das Böse. Die gute Seite wird von der leiblichen Mutter dargestellt. Die Gebrüder wünschten, dass das Kinder- und Hausmärchen-Buch für die Erziehung nützlich sein kann. Für die Analyse des Märchens wird Jungks Theorie des Archetypus verwendet.

Das Herz und die Teufelsstiefmutter und von Stiefmutter ist zu handeln.

Schneewittchen ist ein repräsentatives Werk. Die Stiefmutter von

Schneewittchen versucht sie zu ermorden, weil sie ist auf die Schönheit von Schneewittchen eifersüchtig ist.

Auf der anderen Seite, die Stiefmutter ist die leibliche Mutter.

In diesen Fall spiegelte auch der Kampf zwischen leiblichen Kindern und Stiefkindern diese Opposition wider. Die Stiefmutter toleriert das schlechte Verhalten ihrer leiblichen Kinder gegenüber ihren Stiefkindern. Die Stiefmutter verhält sich gegenüber ihren Stiefkindern und leiblichen Kindern unterschiedlich. Unterschiedliche Behandlung zeugt von schlechter Mütterlichkeit. Aschenputtel ist ein repräsentatives Werk.

Die Stiefmutter stellt die Negativität dar. Das ist zu sehen an ihrem Neid und der schlechten Behandlung ihren Stiefkindern gegenüber. Die Stiefmutter gibt ihren Stiefkindern eine schwere Aufgabe, die sie nicht lösen können. Aber die Hauptfigur löst die schwere Aufgabe und sie kann dadurch erwachsen werden. Das Erwachsensein der Hauptfigur bedeutet, dass sie die Obhut der Mutter nicht mehr braucht.

Die Stiefmutter beschreibt die Negativität im Märchen, aber sie hilft gleichzeitig der Hauptfigur erwachsen zu werden. Wegen ihrer grausamen Behandlung, bleibt sie ein Sinnbild für das Böse und die leibliche Mutter die positive Figur.

I. 서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모는 아버지가 재혼함으로써 생긴 어머니를 의미하며 본 논문에서 다루는 그림동화 『아동과 가정을 위한 동화 Kinder und Hausmärchen』¹⁾에서도 그러하다. 현실에서는 모든 계모가 전실 자녀를 괴롭히고 모해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림동화에서는 계모가 전실 자녀에게 악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계모가 등장하는 동화에서는 계모와 동화의 주인공인 의붓자녀 사이의 갈등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계모의 악행은 전실 자녀에 대한 차별, 폭력 그리고 유기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모는 마녀로 형상화 되거나 자신의 친 딸을 더욱 편애하거나 또는 전실 자녀를 시기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그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교훈적인 측면을 보이기도 한다.

그 이유를 우선 동화라는 장르가 생성된 당시에서부터 찾아보아야 한다. 동화라는 장르는 구전설화가 그 시초이며, 어른들에 의해 전개되고 발전되었다. 또한 처음 동화를 문학의 한 장르로 받아들인 것 역시 어른이었다.²⁾ 구전설화의 주요 수요 계층은 농민이었으며, 구전 설화가 오랫동안 번영했던 곳 역시 시골 마을과 가정의 아이들의 방이었다.³⁾ 그림형제는 가장 독일적이고 가장 민족적인 것들에서 민족의 정신을 발견하고자 민담을 수집하여 그림동화 『아동과 가정을 위한 동화 Kinder und Hausmärchen』을 편찬하였다. 대부분의 동화는 성인 독자의 취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나, 동화속에서는 상층 계급에 속하는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행동 모델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동화는 아이를 작품 속에 등장시키고, 또 아이를 독자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구전 설화와는 다른 점을 보

1) Brüder Grimm von hrg. Heinz Rölleke: Kinder- und Hausmärchen Bd.1-3, Stuttgart. 2010. 이하 KHM으로 줄여서 인용한다.

2) 책 자이프스: 『동화의 정체 Fairy Tales and the Art of Subversion』, 김정아 옮김, 2006 15쪽.

3) 위의 책, 22쪽.

인다.⁴⁾ 동화문학이 최초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쓰여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동화문학은 아이들의 내면적 본성을 주조하는 수단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기 위해 씌여졌다.⁵⁾ 동화의 서술 역시 계모의 전설 자녀인 주인공의 시련 극복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아동과 가정을 위한 동화 Kinder und Hausmärchen』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담을 수집하여 엮었으나, 단순히 민담을 수집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예술적이며 독일적인 것 그리고 교훈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여 서술 편집 하였다.

그림동화의 내용 중에는 생모와의 자녀관계가 매우 험악한 경우도 있다. 1810년 그림형제의 『아동과 가정을 위한 동화』의 최초의 필사본 중 「백설공주 Sneewittchen」, 「헨젤과 그레텔 Hänsel und Gretel」에서 주인공을 괴롭히거나 내 쫓은 인물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계모가 아니라 그들의 생모였다. 따라서 필자는 그림형제가 굳이 아동을 괴롭히고 유기한 친모를 계모로 바꾸어 다시 서술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친모가 모성의 이면인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수도 있다는 점에 관해서도 주목하여 접근하려 한다.

본 논문은 그림동화 중에서 8편을 대상으로 하여 고찰한다. 계모와 자녀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표출되는 동화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연구 대상으로 사용된 동화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검은신부 하얀신부」, 「숲속의 세 난장이」, 「홀레 할머니」, 「헨젤과 그레텔」, 「오누이」 그리고 「노간주나무」이다. 특히 본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그림동화의 형성과 서술의 관점에 관하여 고찰하고, 후반부에서는 부정적 계모상의 모티브를 시기와 질투, 차별, 그리고 폭력으로 구분하고 교훈적 측면과 관련하여 실제 동화의 내용을 예로 들어 논술하려 한다.

4) 위의 책, 63쪽.

5) 위의 책, 71쪽.

그림형제의 『아동과 가정을 위한 동화』 연구 중 인물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고,⁶⁾ 국내의 전래동화를 통한 모성상을 연구한 논문은 다수이지만,⁷⁾ 유럽의 민담 수집본인 그림형제의 『아동과 가정을 위한 동화 Kinder und Hausmärchen』를 통한 모성상 연구는 아주 드물다. 특히 모성상 연구 중, 계모상을 연구하는 의미는 “모성의 원형”⁸⁾중 부정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6) 박대환: 「Grimm 동화에 있어서 여성인물의 특성」,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제 18호, 1999. 351-375쪽.

7) 오진령: 「『콩쥐 팥쥐』에 나타난 모성 콤플렉스와 개성화 과정에 대한 연구」, 허난희: 「권정생 아동문학의 모성성 연구」.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8) C. G. Jung: 『원형과 무의식』,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옮김, 서울, 2003. 195-236쪽.

II. 그림동화의 형성과 그 서술적 관점

1. 그림형제의 동화 수집 배경 및 과정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아동문학의 한 장르인 동화의 원형은 민담이다. 민담은 특정한 사람이 창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세기를 거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 구전되면서 어른과 어린이 모두가 향유하던 이야기이다. 민담은 “의식적으로 씌여진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몇 번이고 이야기되다 보니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⁹⁾

일반적으로 메르헨 Märchen은 민담, 전설, 동화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다. 우선 메르헨 Märchen의 어원을 살펴보면 중고 독일어의 짧은 이야기, 보고 라는 의미를 갖는 Märe에서 유래하며, 이 말은 허구적인 혹은 믿을 수 없는 보고거리라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Märe에 축소형 어미 -chen이 붙어 Märe의 의미보다 더욱 환상적인 이야기를 뜻한다.¹⁰⁾

메르헨 Märchen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의미도 해석도 변화하며, 아동문학의 한 장르인 동화로 발전하였다.¹¹⁾ 민담의 원형인 동화가 아동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 잡도록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그림형제의 『아동과 가정을 위한 동화』이다.¹²⁾

그림형제가 민담을 수집하고 발행 당시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였다. 18세기의 독일은 삼백여개의 소국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독일인들에게는 국가나 민족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낭

9) 김경화 : 「동화에 나타난 무의식 연구 : Grimm 동화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7쪽.

10) Vgl. Max Lüthi : Märchen, 7. Aufl. Stuttgart, 1979, S. 1.

11) 책 자이프스 : 앞의 책, 2008. 112쪽.

12) Heinz Rölleke : Jacob und Wilhelm Grimm, in: Nr. 8615, S. 238.

만주의 시대의 대다수의 작가들을 이러한 시대 문제로 괴로워했으며,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로 이에 대응하였다. 후가 낭만주의자들은 초기 낭만주의자들의 혁명적인 경향과는 다르게 훨씬 더 보수적이고 민중적이며 향토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개혁이나 변화를 요구하는 대신 오히려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국가, 민족, 종교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인다.¹³⁾ 이는 그림형제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림형제는 가장 독일적이고 가장 민족적인 것들에게서 민족의 정신을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의 일환으로 아동과 가정을 위한 동화를 편찬 하였다.

1819년 그림형제는 아동과 가정을 위한 동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마도 이때가 바로 이 동화들을 보존해야 할 때였다. 왜냐하면 동화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동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통상 아주 많은 동화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동화로부터 사라지는 것이지, 동화가 인간으로부터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그러나 할아버지대에서 손자대로 이어지는 집과 정원에 있는 모든 은밀하나 장소들이... 미소와 같은 공허한 화려함의 지속적인 변화에 자리를 내어 주듯이, 풍습 자체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Es war vielleicht gerade Zeit, diese Märchen festzuhalten, da diejenigen, die sie bewahren sollen, immer seltener werden. Freilich, die sie noch wissen, wissen gemeinlich auch recht viel, weil die Menschen ihnen absterben, sie nicht den Menschen : aber die sitte selber nimmt immer mehr ab, wie alle heimlichen Plätze in Wohnungen und Gärten, die vom Großvater bis zum Enkel fort dauerten, dem stetigen Wechsel einer leeren Prächtigkeit weichen, die dem Lächeln gleicht...womit

13) 김성곤 : 『독일문학사』, 글로벌콘텐츠, 2011, 127쪽.

man von diesen Hausmärchen spricht welches vornehm aussieht und doch wenig kostet. 14)

1807년도 야콥 그림 Jacob Grimm과 빌헬름 그림 Wilhelm Grimm은 마부르크 Marburg 대학에서 스승 사비니 Savigny 아래서 법률학을 공부하였으며, 스승을 통해 그림형제는 옛 문헌의 중요성과 중세시대의 정신적인 삶에 대한 경외심 옛 독일의 언어와 문학에 대한 존중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스승을 통해 낭만주의 작가로 활약 중이던 아힘 폰 아르님 Achim von Arnim 및 클레멘스 브렌타노 Clemens Brentano를 알게 된다. 그 당시 아르님과 브렌타노는 『소년의 마술피리 Des Knaben Wudernhorn, 1806-1808』를 편찬하고 그 속편으로 동화집을 편찬하고 계획하였는데, 이 작업에 그림형제가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그림형제가 동화를 수집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그림형제는 그 당시까지 구전되어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헤센 Hessen 지방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1807년부터 브렌타노의 권고로 시작된 동화수집은 1812년에 『어린이와 가정동화 Kinder und Hausmärchen』이라는 제목으로 초판 제 1권이 1815년에 초판 제 2권이 출판되었다. 이후 1819년에 2판, 1837년에 제 3판, 1840년에 제 4판, 1843년에 제 5판, 1850년에 제 6판을 거쳐 1857년에 최종판이 발행되었다. 이 최종판에는 총 200여개의 동화가 실려 있으며, 현재 널리 읽히는 아동과 가정을 위한 동화는 제 7판인 최종판이다. 최종판에 이르기까지 그림형제는 단순히 동화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았으며,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수정·편집 되었다.

아동과 가정을 위한 동화 초판에서 그림형제는 최대한 이야기의 원형을 변화시키지 않고 전해들은 이야기 그대로를 기록 하는데 집중 하였다. 1819년 두 번째 서문에서 그림형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4) Brüder Grimm von hrg. Heinz Rölleke: a.a.O., S. 15.

우리가 여기 수집한 방법에 관한 한 우선 충실성과 진실이 중요했다. 즉 우리들은 독자적인 방법으로는 아무 것도 첨가하지 않았고 전설의 내용과 특징조차도 미화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받아들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였다.

Was die Weise betrifft, in der wir hier gesammelt haben, so ist es uns zuerst auf Treue und Wahrheit angekommen. Wir haben nämlich aus eigenen Mitteln nichts hinzugesetzt, keinen Umstand und Zug der Sage selbst verschönert, sondern ihren Inhalt so wiedergegeben, wie wir ihn empfangen hatten.¹⁵⁾

그림형제에 의하면 동화는 신화에서 생겨났고, Friedrich von Leyen에 의하면 “신화에서 놀아난 딸”이나 마찬가지로 주장한데서 보듯, 동화는 신화에 뿌리를 두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¹⁶⁾ 민담이 원형인 동화는 일반사람들의 이야기이며 그 등장인물 역시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림형제의 동화 수집이 초기 의지와는 달리 아동과 가정을 위한 동화가 재판됨에 따라 편집 수정된 이유는 그들에게 가해졌던 사회적 비판이었다. 이러한 비판을 근거로 그림형제가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 Kinder und Hausmärchen』의 서술자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2. 서술자로서의 그림형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림형제는 『아동과 가정을 위한 동화 Kinder und Hausmärchen』의 서문에서 자신들이 전해들은 이야기의 내용들을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림형제의 의지와는 다르게 동화는 재차 발행

15) Ebd. KHM S. 21.

16) 김경화: 앞의 책, 8쪽.

되면서 변형되었다. 그림형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제 1권은 불안정한 부분은 보충하고, 많은 부분을 더욱 단순하게 순수하게 설명함으로써 완전히 재작업 되었다. 개선되지 않은 부분은 없으며, 외부에서 기원했거나 첨가물로 인해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미심쩍어 보이는 것들은 다시한번 점검 한 후 삭제 하였다.

Daher ist der erste Band faste ganz umgearbeitet, das Unvollständige ergänzt, manches einfacher und reiner erzählt, und nicht viele Stücke werden sich finden, die nicht in besserer Gestalt erscheinen. Es ist nich einmal geprüft, was verdächtig schien, das heißt, was etwa hätte feremden Ursprungs oder durch Zusäze verfälscht sein können, und dann alles ausgeschieden.¹⁷⁾

이러한 변화에는 동화의 초판 발행 이후 그들에게 가해졌던 사회적 비판이 큰 영향을 끼쳤다. 초기 비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 졌는데, 첫 번째는 이 동화 모음집이 그 선택이나 어조에 있어서 어린이에게 적당하지 않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문학적인 표현들이 거의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¹⁸⁾

초판 발행 이후 그림형제는 사회적 비판과 주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1815년 제 2판부터는 문체를 가다듬고 좀 더 교육적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솔직한 이야기의 배후에 아무런 불의도 숨기고 있지 않는 이야기의 진실

17) Ebd. KHM. S. 20.

18) 강민주: 「그림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의 동화」에 반영된 사회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5. 17쪽.

속에서 순수함을 추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어린나이에 맞지 않는 모든 표현들을 이
 신판에서 신중하게 삭제하였다.

Wir suchen die Reinheit in der Wahrheit einer geraden nichts Unrechtes im
 Rückhalt bergenden Erzählung. Dabei haben wir Jeden für das Kinderalter nicht
 passenden Ausdruck in dieser neuen Auflage sorgfältig gelöscht. 19)

그림형제는 이 동화집이 아동교육에 기여하길 바랐다. 그래서 그림형제는 당시
 도덕성에 어긋나거나 거부감이 드는 표현을 수정하거나 과감히 삭제하였다. 남녀
 관계의 묘사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성적인 상상을 가능케 하는 표현에 제한
 을 가하고, 수집된 동화에 기독교적 색채를 가미했다. 또한 선행과 악행의 결과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 악행의 결과를 더욱 잔인하게 묘사하였다. 결론적으
 로 그림형제는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동화로부터 아동들에게 유용한 교훈을 도출
 해 낼 수 있다고 보았고, 특히 빌헬름 그림은 이런 인식을 개작작업에 반영하였
 다. 20) 빌헬름 그림은 어머니의 잔혹성이 드러나는 내용을 계모로 수정하여 모성의
 부정적인 측면에 거부감이 드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헨젤과 그레텔 Hänsel und Gretel」과 「백설공주 Schneewittchen」에서 이러
 한 사실을 확인 할 수있다. 먼저 「헨젤과 그레텔 Hänsel und Gretel」에서 아버
 지에게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자고 제안한 사람은 친모라고 드러나 있다.

두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아직 깨어 있었으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모두 들었다.

Die Zwei Kinder waren auch noch wach von Hunger, und hatten alles gehört,

19) Ebd. KHM S. 17.

20) 김정철: 『허구의 문학 사실의 문학 그림형제의동화』, 경북대학교. 2008. 31-36쪽.

was **die Mutter** zum Vater gesagt hatte²¹⁾

그러나 최종판에서는 어머니가 계모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으며, 계모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Die Zwei kinder hatten vor Hunger auch nicht einschlafen können und hatten gehört, was **die Stiefmutter** zum Vater gesagt hatte.²²⁾

그림동화 초판의 「백설공주 Schneewittchen」에서는 백설공주를 시기 질투한 인물이 친모라는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친모일 가능성은 충분했다. 그리하여 그림형제는 초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후 곧 그녀는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고 떡갈나무처럼 검은 딸을 얻었다. 그 때문에 그 아이는 백설공주라 불리웠다.

Und bald darauf bekam sie ein Töchter, so weiss wie der Schnee, so roth wie das Blut, und so schwarz wie Ebenholz, und darum ward es das Schneewittchn genannt.²³⁾

그리고 나서 그림형제는 단락 뒤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덧붙이고 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왕비는 죽었다. 일년 후 왕은 새로운 부인을 얻었다.

21) Brüder Grimm von hrg. Heinz Rölleke: a.a.O., S. 37-38.

22) Ebd., S. 37-38.

23) Ebd., S. 102-105.

Und wie das Kind geboren war, starb die Königin. Über ein Jahr nahm sich der König eine andere Gemahlin,²⁴⁾

그리하여 그림형제는 백설공주에게 시기 질투한 인물이 친모일 가능성을 완전히 삭제하고, 동화에서 계모를 등장시키면서, 자신들의 동화집에서 친모의 잔혹성을 배제시켰다.

빌헬름 그림 Wilhelm Grimm 의 아들인 헤르만 그림 Hermann Grimm 은 「그림 형제에 대한 회고 Erinnerungen」에 언급한 내용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책은 아동도서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는데, 이 방향은 제1권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에는 아동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더 주목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아동들은 자신의 눈으로 동화를 장악하게 되었다.

Das Buch hatte als Kinderbuch in einer Richtung seine Wege gefunden, an die man beim ersten Bande nicht gedacht. Damals war wohl mehr ins Auge gefaßt worden, was daraus den Kindern etwa erzählt werden könne; inzwischen hatten die Kinder sich der Märchen mit eigenen Augen bemächtigt.²⁵⁾

이상에서 보듯 그림형제는 서술자로서 동화를 단순히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가치관에 따라 정서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배제시켰다.

24) Ebd., S. 102-105.

25) 김정철 : 앞의 책 36쪽, 재인용.

Ⅲ. 부정적 모성상으로서의 계모의 의미

인간은 선과 악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성 역시 마찬가지다. 스위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 Carl Gustav Jung 은 그의 저서 『원형과 무의식 Archetyp und Unbewußtes』에서 모성의 원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머니의 상(像)은 어른이 되어도 감동적이며 잊을 수 없는 추억에 속하는 것, 모든 생성과 변환의 비밀스런 뿌리, 귀향과 내성(內省), 그리고 시작과 끝에서의 침묵의 근원지를 의미하는 모성에이다. 마음 깊이 일지만 동시에 대자연처럼 낮은 것, 사랑이 넘치게 자상하면서 운명적으로 잔혹하며, 기쁨에 찬, 결코 지칠 줄 모르는 삶의 제공자, 고통을 주는 어머니이자, 죽은 자의 뒤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어두운, 응답없는 문이다. 어머니는 모성에 그 자체이며, 나의 체험이고 나의 신비이다.²⁶⁾

아울러 융은 모성원형의 양가적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모성원형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상식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와 정신적인 숭고함, 자애로움, 돌보는 것, 유지하는 것, 성장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제공자이나, 부정적인 면으로는 비밀스러운 것, 감추어진 것, 어둠, 심연, 죽은자의 세계, 삼켜버리고 유혹하고 그리고 독살하는 것,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 즉 마녀나 용, 유령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⁷⁾

26) C. G. Jung: 앞의 책 214-215쪽.

어린이의 성장에 어머니는 중요한 존재이며, 모성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모성이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화에서는 모성의 부정적인 특징을 계모나 마녀에게 투영시켜 선한 모성의 원형을 지켜낸다.

이런 모습은 한 인간과 모성의 동화에서도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동화의 등장인물은 선과 악의 구분이 뚜렷하다. 선을 대변하는 주인공은 보통 아름다운 미모와 착한 심성의 소유자이다. 「백설공주」에서는 주인공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계모가 질투의 감정을 느낀다고 묘사되고 있다. 반면에 악을 대변하는 계모나 마녀들은 못생기고 나쁜 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림형제의 아동과 가정을 위한 동화 『Kinder und Hausmärchen』에서 마녀와 계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왕비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어찌나 오만하고 방자한지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면 견디지를 못했다.²⁷⁾

aber sie war stolz und übermütig, und konnte nicht leiden dass sie an Schönheit von jemand sollte übertroffen werden.

그림동화에서 아이는 쉽게 동일시 할 대상을 찾게 되는데,²⁹⁾ 여기서 수용자인 아이는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때문에 마녀나 계모에 대한 이러한 묘사만으로도 마녀나 계모는 주인공에게 대적하는 악한 인물임을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인지된다.

계모의 악행은 이야기의 출발점으로서 주인공의 시련의 시작을 알린다. 계모가 등장하기 전의 주인공의 인생은 행복하다. 주인공의 삶에 계모가 등장한다는 것은

27) 위의 책. 202-203쪽.

28) 위의 책. 259쪽.

29) 책 자이프스: 위의 책. 130쪽,

기본적으로 친모의 부재를 나타낸다. 계모의 등장과 동시에 계모의 악행으로 인해 안락하던 주인공의 삶은 고난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부(父)는 존재는 확실하나 전면에 드러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가정에서 모(母)의 결핍은 부(父)에게 모(母)의 역할까지 부담해야 하는 크나큰 인물이나 민담에서는 부(父)의 역할을 극히 한정시켜 버리며 이야기 전면에서 부(父)는 사라지거나 방관자와 같이 드러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모의 등장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친모의 부재를 확실하게 인지한다. 계모는 주인공을 직 간접적으로 죽음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혹은 집안의 모든 노동력을 주인공에게 전가시킨다. 그로 인해 주인공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모든 일을 행하며, 계모의 악행에 그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는다.

동화 속에서 악한 모성의 형상인 계모는 선한 모성의 다양한 형상들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모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계모라는 인물상에 투영시켜 선한 어머니의 상과 구분시켜 선한 모성의 이미지를 잘 부각시킨다. 극의 전면에서 등장하고 있는 한 선한 모성인 주인공의 친모는 명확한 형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친모의 부재가 계모의 존재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한 모성을 대변하는 계모가 이야기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선한 모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주인공이 시련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신데렐라에서 계모가 주인공에게 각종 시련을 부과 할 때마다 주인공은 어머니의 무덤가로 다가가 도움을 청한다. 주인공이 계모가 부과한 어려운 문제에 대한 도움을 청할 때마다 다양한 동물이 등장하여 신데렐라가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이때 등장하는 동물들이 선한 모성의 형상이라 볼 수 있다.

선한 모성이 분명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악한 모성은 계모, 마녀의 형상으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성상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악한 모성인 계모는 어머니의 위치에

있을 뿐, 진짜 엄마가 아닌 악한 계모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으로 어린이를 괴롭히고, 차별하는 등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감정들을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모성성과는 분리시켜 친모 그릇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모두 계모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계모의 모든 악한 형상은 전승자들에게 규정되어 있는 선한 모성상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브르노 베텔하임은 동화의 수용자인 어린이의 이분법적 인물 구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에게 있어 한 사람의 좋은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인물을 둘로 분리시킨다. 이에 어린이들은 누구나 가끔 부모의 이미지를 자애로운 면과 위협적인 면으로 나눈다. 그래야만 자애로운 이미지에서 완벽한 안도감을 느끼기 위함이다. 사춘기 아이의 가족로맨스는 이것을 잘 뒷받침 해 준다. 이것은 정상적인 어린이라면 더러는 사실로 믿고 더러는 허구임을 인정하는 그런 환상이나 백일몽이다. 그런 어린이들은 자신의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며, 자기는 어떤 고귀한 신분의 자녀인데, 뭔가 불행한 사정으로 현재의 부모와 살게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 종종 한쪽만 가짜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야기 속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즉 한쪽 부모는 실제 부모이고 다른 쪽은 계모나 계부이다.³⁰⁾

동화 속에서 모성의 부정적인 측면이 계모에게 투영되어서 드러나는 이유는 동화의 주요 수용자가 어린이이며, 어린이의 문학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문학은 미성숙한 어린이에게 주어지는 것만큼 어린이의 정신적 이해 능력, 신체적 지속 능력에 적합한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들의 심신발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학이어야 한다.³¹⁾ 동화 속 주인공 역시 성장하지 않은

30) 브르노 베텔하임: 『옛이야기의 매력 1』, 김옥순, 주옥 옮김, 시공주니어, 111-114쪽.

어린이다. 주인공의 성장에는 부모님과 독립과 시련이 필수적이다. 이야기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부터의 독립은 주인공의 의지가 아닌 계모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시련 역시 계모에 의해 주어진다. 계모가 등장하면서부터 계모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주인공에게 여러 가지의 시련을 가져다준다. 계모가 주인공에게 부여한 시련 극복 과정에서 주인공은 죽음을 맞이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입는 등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된다. 이렇듯 계모에 의한 시련으로 본능에 가까운 생존 방법을 배우는 주인공은 점차 성장하게 되고 집이 아닌 바깥세상을 인지하게 된다. 지각활동·정신활동의 시작은 모성의 등지를 벗어나는 행위로 표출된다. 성장하는 아이는 점점 모성의 자장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성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설수 있어야 진정한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³²⁾

역설적으로 착하고 마음씨 고운 소녀는 계모가 악하면 악할수록 돋보이며 소녀는 계모의 구박을 통해서 보다 높은 자리에 도달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계모는 하나의 입사주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계모 자신은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순수한 증오의 질시의 화신일 뿐이다.³³⁾

즉 모성원형 중 부정적인 형상을 대변하는 계모의 역할로 인해 주인공은 부모와 분리 되어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분리 과정에서 선한 모성은 보호 받게 되고 모든 증오는 계모에게 돌아간다.

31) 김세환: 「그림형제의 「어린이 동화 및 가정동화」 연구 : 서술양식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1989. 8, 73-74쪽.

32) 손혜옥: 「통과제의 시각으로 본 계모설화 속 계모 악인 형상의 의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6. 30., 55쪽.

33) 위의 책, 56쪽.

IV. 계모의 양상과 모티브

그림동화 속에는 다양한 측면의 모성이 나타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화는 단순히 창조된 이야기가 아닌 인간의 삶과 정신을 내포한 이야기이다. 때문에 모성 역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인 모성 즉 선한 모성은 특정 지어진 형태가 아니라 할머니, 동물, 영혼, 절대자의 형상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주인공의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반면 부정적인 모성은 수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전형적인 악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캐릭터로 나타난다. 계모라는 인물은 모성의 어두운 이면을 대변하며, 전설자녀를 학대하거나 죽이는 등 악한행동을 일삼다가 결국에는 그 행동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까지도 아주 비참한 죄 값을 치루게 하는데 일조한다. 계모의 모습은 알고 보니 “계모는 마녀이다.” 라는 또 다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계모의 악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한다. 민담 속에서는 계모는 철저하게 악한 행동만을 일삼는다. 동화는 수용자가 아름답고 착한 그리고 계모의 각종 학대에도 저항하지 못하는 주인공에게 연민과 사랑과 같은 모든 긍정적인 감정을 이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반면에, 계모에게 동정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을 이야기의 결말에 이를 때 까지도 철저하게 차단한다. 오히려 주인공의 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도움을 주었던 악한 행동들을 비난하였던 수용자에게 계모를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면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그림형제 동화에서 계모나 마녀는 착한 주인공의 반동인물로 가장 많이 등장한다. 많은 계모는 동화 속에서 그들의 친 딸과 함께 등장한다. 친 딸은 어머니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의붓딸

과 선과 악의 대조적인 이미지의 대비를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림형제 동화 속 계모는 예외 없이 잔인한 행동을 일삼는 악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그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계모가 등장하는 동화는 계모를 통하여 주요 사건이 발생하며, 주인공을 성장시킨다. 동화 속에서 계모라는 인물상은 단순히 주인공에게 시련을 주는 악한 존재가 아니라 모성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이유는 민담 속에서 주인공을 향한 악한 행동에 대한 원인이 감정이라는 형태로 뚜렷하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를 이해하기 비뚤어진 감정인으로 인해 모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계모가 대변하고 있으며 동화 속에서 선한 모성은 어떠한 형태로 그려지는 지 그림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1. 시기와 질투

부모 자식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 함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고 풍족하게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이고 자녀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로 대변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시기와 질투가 존재함은 이들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으로만 결정짓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시기와 질투가 모티브가 되는 대표적인 동화는 「백설공주 Schneewittchen」, 「하얀신부 검은신부 Die weiße und schwarze Braut」, 「신데렐라 Aschenputte」로 들 수 있다. 이들은 자칫 부정적인 어머니의 모티브중 하나인 차별과 혼동될 수도 있으나 부모와 자녀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다시 말하자면 여성이 여성을 보는 관점으로 보면 차별적 관점과 시기와 질투의 관점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먼저 「백설공주 Schneewittchen」에 나타나는 시기와 질투의 모티브를 살펴보자.

1.1. 백설공주

백설공주의 이야기는 백설공주의 친모인 왕비의 바람대로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빨갛고, 흑단처럼 검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백설공주의 탄생과 동시에 친모는 그만 죽고 말았다. 일년 뒤 왕은 새로운 왕비를 얻는 것으로 시작된다. 동화에서는 새로운 왕비의 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으나,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Es war eine schöne Frau, aber sie war stolz und übermütig, und konnte nicht leiden dass sie an Schönheit von jemand sollte übertroffen werden..³⁴⁾

이 부분은 왕비의 최대 가치는 ‘아름다움’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인공인 백설공주와 계모인 왕비 사이의 갈등의 씨앗이 ‘아름다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왕비는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은 항상 왕비가 가지고 있는 마법의 거울을 통해 왕비에게 전달된다. 이 거울은 백설공주와 의붓어머니 사이의 갈등의 씨앗이 된다. 백설공주가 아동기였을 때, 마법의 거울은 단순히 계모의 나르시즘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이자 동시에 현실을 인지 시켜 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왕비는 거울이 백설공주가 아름다운 여성임을 인지시켜 주기 전 까지, 항상 자신의 보살핌을 받는 어린 아이로만 인식한다. 그러나 점점 백설공주가 여성으로서 성숙해 가자 거울은 왕비에게 더 이상 백설공주는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닌 여인임을 인지시켜준다. 다시 말해 왕비에게 있어서 성장한 백설

34) Brüder Grimm von hrg. Heinz Rölleke: Ebd., KHM S. 259.

공주는 더 이상 자신의 품안에서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 아닌, 유일한 여성성인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모한 것이다. 보살핌의 대상이었던 어린 아이인 백설공주와 보살핌을 주는 계모 사이의 평화는 거울에 의해 깨지고 만다.

왕비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인지 거울에게 물어왔으며, 그 거울은 항상 왕비가 아름답다고 말한다.

동화는 우선 독자들에게 백설공주가 아름다우며, 성숙한 여인임을 알려준다. 독자가 먼저 인식한 아름다움을 왕비는 거울이 공주에 대한 아름다움을 언급하면서 부터 그녀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된다. 이 말을 들은 왕비에 대해 동화에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왕비는 깜짝 놀라며 질투심으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졌다. 그때부터 왕비는 공주를 바라볼 때면 심장이 몸속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그만큼 소녀가 미웠으며, 왕비의 마음속에선 질투와 오만이 잡초와 같이 점점 더 무성하게 자라나 밤이건 낮이건 관계없이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Da erschrak die Königin, und ward gelb und grün vor Neid. Von Stund an, wenn si Snewittchen erblicktem Kehrte sich ihr das Herz im Leibe herum, so hasste sie das Mädchen. Und der Neid und Hochmut wuchsen wie ein Unkraut in ihrem Herzen immer höher, das sie Tag und Nacht keine Ruhe mehr hatte.³⁵⁾

백설공주가 보살핌을 필요로 한 아동이 아니라 한명의 여성임을 인지하게 된 왕비는 백설공주에 대한 질투에 휩싸이게 된다. 여기서 주인공에 대한 계모의 질투의 감정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왕비는 자신의 성에 더 이상 아이가 아닌 한 명의 성숙한 여인이 된 인물이 존재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결국

35) Ebd., KHM S. 259.

왕비는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존재 하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 그리하여 왕비는 백설공주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게 된다. 이러한 왕비에 대한 감정은 동화에서 백설공주에 대한 질투로 그려진다.

왕비는 백설공주에 대해 총 네 번의 살해를 시도한다. 그러나 백설공주에 대한 왕비의 살해 시도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 살해 시도는 왕비가 아닌 다른 인물을 통해 시행 되나,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살해 시도에서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가담한다.

첫 번째 살해 시도에서 왕비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이고, 간과 허파를 가져오라 명령한다. 이는 백설공주의 확실한 죽음을 확인하는 장치로 볼 수도 있으며,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백설공주는 아직 자신의 품안의 자식이며, 세상으로 내 보낼 수 없는 내면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왕비가 사냥꾼이 백설공주의 살해의 증표로 가져온 간과 허파를 요리사에게 시켜 요리하여 섭취한 행동에서 알 수 있다.

반면에 사냥꾼의 도움으로 숲으로 간신히 도망치게 된 백설공주는 숲 속에서 일곱난장이의 집이라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된다. 백설공주는 자신이 계모에게 죽임을 당할뻔 하였지만, 사냥꾼의 도움으로 도망치다가 이 곳을 찾게 되었음을 설명하였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일곱난장은 백설공주에게 조건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집에 머무는 것을 허락한다. 여기서 일곱 난장은 백설공주의 여성성 인지에 대해 왕비와는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일곱 난장은 자신들의 침대에서 자고 있는 백설공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인가!

was ist das Kind so schön!³⁶⁾

36) Ebd., KHM S. 261.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일곱난장이는 백설공주를 성숙한 여성이 아닌 아이로 인지한다. 그러나 마냥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 아이가 아닌, 성장의 단계에 있으며 배울 것이 많은 아이로 인지하였기에 백설공주에게 자신들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네가 우리 집 살림을 맡아서 요리, 침대정돈, 빨래, 바느질과 뜨개질을 하며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돈시켜준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도 좋다. 그러면 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Willst du unsern Haushalt verstehen, kochen, betten, waschen, nähen und stricken, und willst du alles ordentlich und reichlich halten, so kannst du bei uns bleiben, und es soll dir an nichts fehlen.³⁷⁾

동시에 일곱 난장이는 계모에 대한 조언도 덧붙인다.

너의 계모를 조심해라, 곧 네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누구도 집 안에 들이지 말어라.

hüte dich vor deiner Stiefmutter, die wird bald wissen dass du hier bist; lass ja niemand herein.³⁸⁾

왕비에게 있어서 백설공주는 보살핌을 주어야 할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일곱 난장에게 있어서 백설공주는 아직 어린 아이이기는 하지만, 성장의 단계에 있으며,

37) Ebd., KHM S. 261.

38) Ebd., KHM S. 262.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소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난장이는 백설공주에게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한다. 또한 일곱난장이는 백설공주가 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그 어떤 결핍도 없을 것임을 알려준다. 이는 일곱난장이의 집에서는 백설공주가 한 가정에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백설공주는 여전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성숙한 여성은 아니다. 때문에 일곱난장이는 백설공주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는 것과 동시에 계모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며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피 준다. 따라서 일곱 난장이는 성장의 기로에 서 있는 백설공주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죽이려 하는 계모와는 다른 모성의 형태를 가진다. 동화가 계속 진행 될수록 계모와 일곱 난장이의 모성의 형태는 더욱 극명하게 대비된다.

백설공주가 일곱 난장이의 집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여성으로서 하나의 임무를 부여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왕비는 사냥꾼이 가져온 백설공주의 간과 허파를 섭취한 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 믿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러나 곧 왕비의 마음의 평화는 거울에 의해 깨어지고 만다. 거울은 왕비에게 백설공주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더욱더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음을 알린다. 백설공주의 성장을 뒤늦게 인식한 왕비는 백설공주에 대한 분노와 질투의 감정이 더욱 심화되어 자신이 직접 백설공주의 살해에 가담하기로 결정한다.

왕비는 일곱 난장이 집에 있는 백설공주에게 세 번의 살해 시도를 한다. 이 세 번의 살해 시도는 백설공주에게 있어 성숙한 여성이 될 수 있는 세 번의 시련으로 해석된다. 이 때 왕비가 백설공주를 살해 할 때 사용한 도구는 코르셋, 빗, 사과 이다. 이 도구는 모두 여성의 외적 아름다움을 내포하고 있다. 코르셋은 여성의 체형을, 빗은 여성의 아름다운 머릿결, 독이 든 사과는 성경 창세기전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후 수치심을 알게 된 것과 같이 부끄러움을 알게 한다. 백설공주에 대한 왕비의 살해 시도는 매번 일곱 난장이에 의해 저지된다. 다시 말해 백설공주는 일곱 난장이

에 의해 시련을 극복한다. 왕비는 자신의 살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백설공주가 매번 소생하며 더욱더 아름다워 지자 질투의 감정은 점점 더 고조 되어 간다. 동화에서는 백설공주 살해를 실패 할 때마다 왕비의 감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백설공주를 죽일 수 있을까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온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질투 때문에 도무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 Und da sann und sann sie aufs neue, wie sie es umbringen wollte; denn so lange sie nicht die schönste war im ganzen Land, ließ ihr der Neid keine Ruhe³⁹⁾

또 한번의 실패 후에도, 계모의 감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 말을 들은 왕비는 모든 피가 심장으로 모여드는 것 같았다. 백설공주기 다시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Als sie das hörte, lief ihr alles Blut zum Herzen, so erschrak sie, denn sie sah wohl dass Sneewittchen wieder lebendig geworden war.⁴⁰⁾

결국 백설공주에 대한 모든 살해계획에 실패한 후에 계모는 다음과 같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다

거울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은 왕비는 화가 너무너무 치솟아 치가 떨리고 몸까지 부들부들 떨렸다.

Als sie den Spiegel so eden hörte, zitterte und bebte sie vor Zorn.⁴¹⁾

39) Ebd., KHM S. 262.

40) Ebd., KHM S. 263.

41) Ebd., KHM S. 264.

왕비의 마지막 살해 시도로 인해 백설공주는 더 이상 일곱 난장이에 의해 소생하지 못한다. 왕비가 준 독이든 사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된 백설공주에게 남성도 여성도 아닌 일곱 난장이는 백설공주의 성장에 더 이상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곱난장이의 모성으로써의 역할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화에서 아직 완벽한 여성 즉, 백설공주를 아동기때부터 보살펴 온 계모는 여전히 존재한다. 여전히 백설공주는 내적으로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모인 왕비에게서 독립하지 못한다.

백설공주가 더 이상 일곱 난장이에 의해 소생하지 못함을 알게 되자 왕비는 질투심과 분노는 가라앉게 된다. 백설공주가 사라진 이상 왕비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름다운 여성이 된 것이다. 즉 말하자면 왕비만이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완벽한 여성인 것이다.

곧 백설공주는 왕자에 의해서 소생하게 된다. 왕자의 도움으로 백설공주는 내적으로 완벽히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모한다. 그러나 왕비는 백설공주가 자신의 품 안을 벗어나 자신보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었음을 받아들여려 하지 않는다. 왕비는 다시한번 진실만을 말하는 거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지 물어 보나, 거울의 대답은 이웃나라의 왕비가 된 백설공주가 더욱 아름답다고 대답한다. 왕비는 더 이상 거울을 통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직접 백설공주의 성숙을 보기 위해 공주의 결혼식장으로 향한다. 백설공주의 결혼식장에서 왕비는 직접 백설공주의 성숙한 아름다움을 확인하게 된다. 이 후 동화의 결말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녀는 빨갭게 달궈진 신발을 신고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춤을 추어야만 했다.

Da musste sie in die rotglühenden Schuhe treten und so lange tanzen, bis tot

zur Erde fiel.⁴²⁾

이로 인해 왕비는 더 이상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며, 어미로써 백설공주의 성숙을 축복해 주는 성숙한 모성으로 변모한다. 그러나 그 동안의 부정적인 모성으로 인해 평생토록 고통받게 된다.

이와같이 백설공주의 이야기는 왕비의 질투심에 의한 살해시도→주인공의 죽음→주인공의 소생(본인의 스스로가 아닌 타인의 도움으로 인한 소생)이라는 일정한 플롯을 유지한다. 또한 표면상으로 드러난 악인 계모와의 대립은 여성의 외적인 성숙을 그리며, 일곱 난장이와의 생활은 여성의 내적인 성숙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계모의 백설공주에 대한 질투에 의한 살해시도가 주인공을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는 점은 그림형제 동화의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1.2. 하얀신부 검은신부

「하얀신부 검은신부 Die weiße und schwarze Braut」에서 동화 백설공주와는 다른 형태의 질투의 감정이 나타난다. 백설공주에서는 자녀의 성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여성으로 인지하는 비뚤어진 감정을 가진 모성을 대변되고 있다면, 이 이야기에서는 보이는 그대로 자신의 못난 자녀보다 더 아름답고 착한 의붓자녀에 대한 질투의 감정이 표출된다. 보통 동화에서 의붓자녀와 친 자녀가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에는 두 자녀에 대한 차별의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성이 그려진다. 그러나 하얀신부 검은신부에서는 두 자녀를 차별하는 모습은 그리고 있지 않으며, 아름다운 의붓자식에 대한 질투, 자신의 친 딸이 가져야만 하는 -계모의 입장에서- 행운을 모두 가진 의붓자식에 대한 질투가 주된 모티브로 나

42) Ebd., KHM S. 267.

탄난다.

동화의 시작은 한 여인이 친딸과 의붓딸을 데리고 꼴을 बे기 위해 들판으로 나가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이때 하느님이 가난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그들에게 다가와 도움을 청한다. 이 도움요청을 받아드리는 방법에 따라 이들의 운명은 갈리게 된다. 계모와 그녀의 딸은 이 도움에 대하여 매몰차게 거절하여 추한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저주에 걸리게 되었다. 반면에 주인공은 하느님의 도움요청에 친절하게 응하였고, 하느님은 주인공에게 세 가지 축복을 내려주겠노라 말한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해와 같이 맑고 깨끗한 외모, 아무리 써도 돈이 떨어지지 않는 지갑, 죽은 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소원을 빈다. 이야기 속에서 이 사건 이후 그녀들이 집으로 돌아온 후의 모습과 감정은 이렇게 설명된다.

어머니가 친딸과 함께 돌아와 보니, 두 사람은 숫처럼 시꺼멓고 못생긴 물골이 되었지만 의붓딸은 하얗고 아름답게 변해 있었다. 더욱 심술이 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의붓딸을 괴롭힐까 하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

Als die Stiefmutter mit ihrer Tochter nach Hause kam und sah dass sie beide kohlschwarz und hässlich waren, die Stieftochter aber weiß und schön, so stieg die Bosheit in ihrem Herzen noch höher, und sie hatte nichts anders im Sinn als wie sie ihr ein Leid antun könnte. 43)

주인공의 행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인공의 오라버니가 그린 주인공의 아름다움에 반한 왕은 호화로운 황금 옷을 내어주며 그녀를 왕비로 맞이하려 한다. 주인공의 계속되는 행운에 의붓자녀는 질투로 자신의 어머니[주인공의 계모]에게 투정을 부린다.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질투의 감정은 오로지 의붓 자녀만의 감정

43) Ebd., KHM S. 219.

이며, 계모는 단순히 자신의 친 자녀의 바람을 들어 준 것과 같이 묘사된다.

[...]그러나 까만 아가씨는 너무나 썸이 나고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마술은 어디 쓰나요? 저런 행운도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없으니 말이에요.”

어머니가 말했다.

“가만히 있거라. 행운을 네게로 돌릴 테니 말이다.”

[...]allein die Schwarze war eifersüchtig über das Glück, ägerte sich über alle Maßen und sprach zu ihrer Mutter "was helfen nun all eure Künste, da ihr mir ein solches Glück doch nicht verschaffen könnt." "Sei still", sagte die Alte "ich will dir's schon zuwenden." 44)

그러나 주인공의 아름다움과 행운에 대한 질투는 단지 의붓 자매만 가지고 있던 감정은 아니다. 계모는 질투에 가득 찬 자신의 친 딸의 요구의 뒤에 숨어서 의붓 자녀가 성으로 떠나는 날 그녀의 눈과 그녀 오라비의 귀를 멀도록 하여 주인공의 것들을 하나 둘씩 빼앗는다. 처음엔 옷, 모자 그리고 결국에는 주인공을 살해하기 까지 한다. 계모의 이러한 악행의 이면에는 의붓 자녀가 가지게 된 행운이 자신의 자녀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가 내포되어 있다.

동화에서 주인공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시련을 극복하고 미성숙한 어리석음을 탈피하고 성장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는 부활의 형태로 그려진다.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의 죽음 이후, 주인공은 때 묻지 않은 순수한 형태인 영혼이나 동물의 형태로 부활을 한다. 하얀신부 검은신부의 주인공 역시 계모에게 살해당한 이후에 하얀오리로 부활한다.

주인공은 오리의 형태로 성에 나타나 왕과 결혼한 의붓 자매와 계모의 근처를

44) Ebd., KHM S. 220.

맴들며 그들의 소식을 부엌일을 돕던 소년에게 물어본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오리를 이상하게 생각한 부엌일을 돕던 소년이 왕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기 전까지 주인공은 자신을 살해하고 오라버니를 위협에 빠뜨린 의붓 자매와 계모에게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는다.

왕에게 가게 된 오리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이한다. 첫 죽음 이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부활을 했던 주인공은 성숙한 자이를 가진 본인의 본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 완벽하게 부활을 하게 된 주인공은 그간 있었던 사실을 왕에게 고하여 계모와 의붓자녀가 처벌을 받도록 한다.

하얀신부 검은신부 이야기에서 계모는 모성의 부정적인 측면 중 질투의 감정을 주로 드러낸다. 그러나 계모와 의붓자매가 주인공을 질투하는 마음에서 벌인 모든 일들을 죽음으로 처벌을 받음으로써 모성의 부정적인 형상은 극복된다.

1.3. 신데렐라

우리나라에서 흔히 신데렐라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아셴푸텔 Aschenputtel」은 계모 이야기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해 주인공은 계모와 의붓 자매들이 가족이 되며, 그들은 주인공을 차별하는 점에서 신데렐라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콩쥐 팥쥐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슷한 이야기에서도 두 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신데렐라 이야기의 계모가 차별이 아닌 시기와 질투의 양상으로 구분되는 큰 이유가 된다. 콩쥐팥쥐에서는 단순히 계모와 그녀의 자녀들이 콩쥐를 구박을 하거나 대부분의 노동을 위임한다. 신데렐라 이야기의 계모와 그녀의 자녀들 역시 주인공인 신데렐라를 구박하고 대부분의 노동을 위임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녀들은 자신들과 신데렐라와의 신분에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또한 「신데렐라」는 「하얀신부 검은신부」와 비슷한 형태이나 계모의 행동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인다. 「하얀신부 검은신부」에서는 계모가 전면에 나서서 의붓 자녀에 대한 시기의 감정을 표출하지만 「신데렐라」에서는 의붓 자녀들이 계모의 시기의 감정을 대신 표출한다.

이야기의 시작은 「백설공주」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친모의 죽음에서 시작한다. 신데렐라의 친모는 죽음에 직면한 순간 신데렐라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긴다.

사랑하는 아이야, 경건하고 착하게 지내라. 그러면 신은 항상 너를 돌볼 것이며 나는 하늘에서 너를 보살필 것이다.

Liebes Kind, bleib fromm und gut, so wird dir der liebe Gott immer beistehen, und ich will vom Himmel auf dich herabblicken, und will um dich sein.⁴⁵⁾

친모의 유언은 신데렐라의 삶의 지침이 되고 그 지침을 토대로 신데렐라는 경건하고 착하게 살아간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자 아버지는 두 딸을 가진 계모를 데려온다. 계모와 그 자녀들은 신데렐라의 아버지에 의해 한 가정의 일원이 된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신데렐라는 자신들이 이 집안에서 완전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이방인임을 인식시켜 주는 존재이다.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 보아도 본 처의 자식인 신데렐라는 자신들 보다 위인 공주님과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한다. 때문에 제일 먼저 그들은 집안의 공주님인 신데렐라를 재투성이, 부엌데기로 만들어 놓는다. 이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 저 바보같은 계집애가 우리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거지!”

45) Ebd., KHM S. 132.

그들은 말했다.

“ 빵을 먹기 위해서는 집안일을 해야지. 부엌데기와 같이 나가있어야 해.”

그들은 소녀의 예쁜 옷을 벗기고, 낡은 회색 옷과 나막신을 주었다.

“ 저 거만한 공주님이 차리고 나선 꼴을 좀 보라지!”

그들은 깔깔 웃으며 외쳤다. 그리고 소녀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소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힘든 일을 해야 했다.[...]아궁이 옆 잣더미 속에 누워야 했다. 그래서 늘 재투성이의 더러운 모습이었다. 그들은 소녀를 ‘재투성이’라는 뜻의 ‘아센푸텔’이라 불렀다.

“ Soll die dumme Gans bei uns in der Stube sitzen!” Sprachten sie, “wer Brot essen will, muss es verdienen: hinaus mit der Küchenmagd.” Sie nahmen ihm seine schönen Kleider weg, zogen ihm einen grauen alten Kittel an, und gaben ihm hölzerne Schuhe. “Seht einmal die stolze Prinzessin, sie wie gequetzt ist!” riefen sie, lachten und führten es in die Küche[...], sondern musste sich neben den Herd in die Asche legen. Und weil es darum immer staubig und schmutzig aussah, nannten sie es *Aschenputtel*.⁴⁶⁾

신데렐라는 계모와 의붓자매의 등장으로 인해 평화롭던 일상이 깨지게 된다. 계모와 의붓 자녀들은 신데렐라의 모든 것을 시기 질투 한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의 감정 때문에 신데렐라는 항상 입어 왔던 예쁜 옷 대신에 누더기 옷을 입기 되었으며, 공주님과 같은 안락한 생활은 집안일을 하는 하녀와 같은 생활로 변모한다.

그러나 동화에서 신데렐라에게 이런 행위를 한 인물은 계모가 아닌 신데렐라의 의붓자매이다.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계모는 신데렐라에 대한 질투의 감정은 본인에게서가 아니라 자신의 친 자녀들에 의해서 표출된다. 신데렐라의 의붓자녀들의 이러한 그릇된 행동을 계모는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으로 그녀들

46) Ebd., KHM S. 132.

의 행동에 무언의 동의를 표현한다.

여기서 신데렐라의 친모와 계모의 모성성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신데렐라의 친모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신데렐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계모는 자신의 친 자녀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방관으로 일관한다.

신데렐라는 친모가 남긴 유언을 지키며, 계모와 의붓 자매들이 부여한 과제 역시 성실하게 수행하며 근면한 여성으로 성장하는 반면 계모의 친 자녀들인 신데렐라의 의붓자매들은 계모의 비호 아래 신데렐라가 누렸던 모든 것을 누리며 오만하며 허영심이 가득한 여성으로 성장한다. 이는 장애 가는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선물을 말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어느날 아버지는 장애 가기 전에 의붓자녀들에게 무엇을 사다주길 원하느냐고 물었다. 큰 딸은 “아름다운 옷”이라 말하였고, 둘째딸은 “진주와 보석.”이라고 말하였다. “그럼 신데렐라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라고 아버지가 묻자 신데렐라는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는 길에 모자에 걸리는 첫 번째 나뭇가지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였다.

Es trug sich zu, dass der Vater einmal in die Messe ziehen wollte, da fragte er die beiden Stieftöchter was er ihnen mitbringen sollte. "Schöne Kleider" sagte die eine, "Perlen und Edelsteine" die zweite. "Aber du, Aschenputtel", sprach er, "was willst du haben?" "Vatter, das erste Reis, das euch auf eurem Heimweg an den Hut stößt, das brecht für mich ab."⁴⁷⁾

신데렐라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친모에게 줄 인사귀를 요구 한다. 이는 여전히 신데렐라의 마음속에 성스러운 모성의 상징인 친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신데렐라의 화려한 걸치장과 공주님과 같은 모습에 질투를 하는 의붓 자매들은

47) Ebd., KHM S. 133.

예쁜 옷이나 진주와 보석과 같은 치장용품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성장해 가는 신데렐라와 의붓 자매들에게 성숙한 여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찾아온다. 이때 항상 신데렐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 자녀에게도 방관자의 형태로 존재하였던 계모는 전면으로 등장한다.

「신데렐라」에서 신데렐라는 계모와 의붓자매들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반면에 계모가 데려온 신데렐라의 의붓 자매들은 부모의 품을 벗어날 수 없는 미성숙한 여성이었다. 때문에 계모는 신데렐라에게 어떠한 보살핌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의 자녀들이 가지지 못한 성숙함을 시기하게 된다. 그러나 왕이 아들에게 신붓감을 골라 주기 위해 무도회를 열기로 하고, 신데렐라와 자신의 자녀들을 포함한 나라의 모든 처녀들은 그 무도회에 초대를 받게 되자 계모는 아직 신데렐라 역시 완전히 성숙한 여성이 아님을 인지하게 된다. 또한 아직은 미성숙한 자신의 자녀들과 신데렐라는 왕자의 신붓감이라는 여성의 최고 지위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계모는 자신의 친 자녀와 신데렐라가 왕자의 신붓감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일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모는 신데렐라가 수행 할 수 없을 법한 과제를 부여하며,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나 이미 내적으로 이미 성숙한 여성인 신데렐라 산비둘기의 도움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무도회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계모는 신데렐라는 외적으로는 성숙한 여성이 아님을 근거로 무도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먼지투성이에 뗏국물이 줄줄 흐르는 아셴푸텔, 무도회에 가고 싶어? 옷도 구두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춤을 추겠다는 것이니?”

“Du Aschenputtel,” sprach sie, “bist voll Staub und Schmutz und willst zur Hochzeit? du hast keine Kleider und Schuhe, und willst tanzen!”⁴⁸⁾

“ 안돼 아셴푸텔, 넌 옷이 없어서 춤을 출 수 없어. 비웃음만 살거야.”

“nein, Aschenputtel, du hast keine Kleider, und kannst nicht tanzen: du wirst nur ausgelacht.”⁴⁸⁾

“ 그래도 아무 소용 없어. 넌 옷이 없어서 춤을 출 수 없으니 데리고 가지 못하겠다. 너 때문에 우리 모두 창피만 당할거야.”

“ es hilft dir alles nichts: du kommst nicht mit denn du hast keine Kleider und kannst nicht tanzen; wir müssten uns deiner schämen.”⁵⁰⁾

이렇게 계모와 신데렐라의 의붓 자매들은 신데렐라를 집안에 남겨두고 무도회장으로 가버린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신데렐라는 산비둘기의 도움으로 옷과 의상을 구해 무도회장으로 갈 수 있게 되었고, 무도회장에서 신데렐라는 자신이 성숙하고 완벽한 여성임을 왕자에게 인식시키고 돌아온다.

이렇듯 계모가 주인공을 무도회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주인공이 더럽거나 옷이 없어서 춤을 출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계모에게 의붓 자녀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신분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런 계모가 주인공에게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신분에 대한 콤플렉스는 자신의 친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왕자가 자신의 신부를 찾기 위해 황금구두를 들고 집을 방문하자, 주인공의 계모는 자신의 딸들의 발에 맞지 않는 황금구두를 맞게 하기 위해 딸의 발가락이나 뒤꿈치를 잘라낸다. 계모는 자신의 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48) Ebd., KHM S. 133-134.

49) Ebd., KHM S. 134.

50) Ebd., KHM S. 135.

“ [...] 왕비가 되면 걸을 필요가 없을테니까.”

“ [...] wenn du Königin bist, brauchst du nicht mehr zu Fuß zu gehen.”⁵¹⁾

결국 자신의 자녀가 왕자가 반한 상대가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또 다른 여성을 찾는다. 그 때 신데렐라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자 계모는 주인공의 신분상승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안돼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정도로 아주 더러워요.”

“ach nein, das ist viel zu schmutzig, das darf sich nicht sehen lassen.”⁵²⁾

그러나 왕자가 끝까지 신데렐라를 보고 싶어 하였기 때문에 신데렐라는 황금구두를 왕자 앞에서 신어 보게 되었고, 결국 자신이 그 무도회에 참석했던 여인이었음을 증명해 낸다. 결국 신데렐라는 왕자와의 결혼을 통해 신분이 상승하게 되었으며 이 이후로 더 이상 계모는 등장하지 않음으로 써 질투를 모티브로 한 모성의 부정적인 형상은 극복된다.

2. 차별

그림형제 동화에서 부정적인 어머니의 형상 중 하나로 차별을 들 수 있다. 가정 안에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들은 자신의 형제, 자매를 부모의 사랑을 나눠 가지는 라이벌로 생각한다. 그렇게 때문에 아들은 자신과 형제 혹은 자매와 차별을 받으며 애정에 대한 결핍을 느끼게 된다. 『아동과 가정을 위한 동화』에서 차별은 「숲속의 세 난장이」, 「외눈이, 두눈이, 세눈이」 등 계모가 등장하는 작

51) Ebd., KHM S. 137.

52) Ebd., KHM S. 138.

품에서 대부분 나타난다.

작품에서 계모는 자신의 친 자녀와 의붓 자녀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차별을 한다.

2.1. 숲속의 세 난장이

「숲속의 세 난장이 Die drei Männlein im Wald」는 다른 계모가 등장하는 다른 동화와 몇 가지의 차이점을 보인다. 숲속의 세 난장이에서는 한 가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개의 가족이 존재한다. 한 가정은 할아버지와 주인공이 속한 곳이고, 다른 한 가정은 과부와 그 자녀들이 속한 가정이다. 또 다른 점은 계모의 본인과 친 자녀에게 결핍된 완벽한 가정을 얻기 위한 자기주도적인 역할이다. 이는 동화의 시작점에서 과부가 할아버지와 주인공이 속한 가정과 합쳐지길 원하면서 드러난다. 계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아버지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으며 완벽한 가정을 원하였기에 계략을 짠다. 계모는 주인공에게 자신과 주인공의 아버지가 결혼한다면, 주인공은 매일 아침 우유에 세수를 하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을 거라는 보상을 약속한다. 과부가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반면에 주인공의 아버지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는 주인공에게 과부가 제안한 이야기를 듣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구멍이 난 장화에 물을 부은 후 물이 새는 여부에 따라 결혼을 결정하기로 한다. 결과적으로 구멍이 난 장화에 물이 새지 않았기 때문에 과부와 할아버지는 결혼을 하게 되고, 주인공에게는 새 어머니가 새 어머니와 그녀의 친 자녀에게는 안락한 가족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과부와 할아버지가 결혼 후에 계모가 주인공에게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다음날 아침, 두 소녀가 일어났을 때 남자의 딸에게는 세숫물로 우유가, 마실 것으

로는 포도주가 나왔다. 그렇지만 여자의 딸에게는 세숫물로 물이, 마실 것으로도 맹물이 나왔다. [...] 세 번째 날 아침이 되니까, 남자의 딸에게는 세숫물과 마실 것으로 모두 물이 나왔지만, 여자의 딸에게는 세숫물로 우유가, 마실 것으로는 포도주가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 그대로였다.

Am andern Morgen, als die beiden Mädchen sich aufmachten, da stand vor des Mannes Tochter Milch zum Waschen und Wein zum Trinken, vor der Frau Tochter aber stand Wasser zum Waschen und Wasser zum Trinken. [...] Und am dritten Morgen stand Wasser zum Waschen und Wasser zum Trinken vor des Mannes Tochter, und Milch zum Waschen und Wein zum Trinken vor der Frau Tochter, und dabei blieb's.⁵³⁾

계모에게 있어서 주인공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 완벽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을 뿐, 결혼 후에는 주인공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용 가치가 사라진 주인공에 대한 계모의 감정은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여자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녀를 싫어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더 심술을 부릴 수 있을지 모를 지경이 되었다. 계다가 의붓딸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지만 친딸은 못생기고 불쾌했기 때문에 샘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Die Frau ward ihrer Stieftochter spinnefeind und wusste nicht wie sie es ihr von einem Tag zum andern schlimmer machen sollte. Auch war sie neidisch, weil ihre Stieftochter schön und lieblich war, ihre rechte Tochter aber hässlich und widerlich.⁵⁴⁾

53) Ebd., KHM S. 89.

54) Ebd., KHM. S. 89.

이 부분을 보면 자칫 시기와 질투의 모티브와 혼동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 동화에서 질투의 모티브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질투의 모티브는 계모의 친 자녀가 자신의 의붓자매에게 가지는 감정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차별의 모티브는 계모가 자신의 친 자녀가 의붓자녀에게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에 동화되어 하는 행동과 감정에 드러난다. 계모에게 있어서 이용가치가 사라진 주인공은 자신의 친 자녀의 위치를 위협하는 불순한 존재로 인식한다. 결국 계모는 주인공을 집 밖으로 내 쫓을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계모는 매우 추운 겨울날 자신의 의붓자녀를 추위를 전혀 보호해 주지 못하는 종이옷을 입혀 딸기를 가져 와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 한 후 집 밖으로 내 쫓는다. 이로 인해 주인공은 보호 받을 수 있는 집과 분리되어 냉혹한 바깥으로 보내지게 된다.

여기서 동화는 다른 동화와는 또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 「백설공주」에서 왕비는 백설공주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밖으로 쫓아내긴 했지만 바깥의 현실이 이렇게 냉혹하게 표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숲속의 세 난장이」에서는 추운 겨울날이라고 정확히 표기 되어있다. 동화에서 숲은 넓은 의미의 모성의 원형을 상징한다.⁵⁵⁾ 때문에 추운 겨울날의 숲은 계모의 냉혹한 모성을 그리고 있다.

의붓 자녀는 이러한 냉혹한 계모에 의해 시련을 겪게 되지만 곧 이어 세 난장이의 집을 발견하여 안락함을 느끼게 된다. 주인공은 세 난장이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세 난장이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세 가지의 선물을 준 후, 계모가 구해 오라고 시킨 딸기를 구할 수 있게 도와준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계모는 주인공을 완전히 바깥으로 분리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 올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과제를 완수 했을 뿐 아니라 세 가지의 선물을 획득하게 된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간다. 세 난장이의 선물 중 하나는 입에서 말을 할 때마다 금이

55) C.G. Jung : 앞의 책, 202쪽.

떨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의붓 자녀의 동화 전체를 아우르는 계모의 친 자녀가 가지는 질투의 모티브가 나타난다. 이를 알게 된 계모의 친 딸은 질투심이 나서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세 난장이에게 선물을 받길 원했다. 이 때 또 한 번의 차별의 모습이 나타난다. 의붓어머니는 의붓 자녀를 내 쫓은 것과 는 다르게 자신의 친 자녀는 추운 겨울날 숲으로 내 보내는 것을 원치 않아한다. 그러나 친 자녀의 간곡한 바람으로 결국은 숲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고야 만다. 그러면서 의붓 자녀에게 준비해 주었던 것과는 다르게 따뜻한 빵을 주고, 모피로 만든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가게 한다. 여기서 계모가 차별의 한 형태로 생존의 기본 요건인 의식주가 자신의 친 딸에게는 풍족하게 제공되었고 의붓 자녀에게는 부족하게 제공 되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계모의 차별의 행위는 자신의 친 자녀가 의붓 자녀와 같은 행운을 가져 오지 못하게 되자 더욱 거세진다. 계모는 주인공이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부여 하는데, 이 과제는 폭력의 행태를 띄기도 한다. 순종적으로 계모가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던 주인공은 집에서 온전히 분리 될 수 있는 순간이 오자 왕자라는 조력자의 힘을 빌어서 집으로부터 떠난다. 시간이 흘러 주인공이 완전히 집으로 분리되어 본인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게 된다. 흔히 동화에서 주인공이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여성으로서의 임무는 계모로부터 주인공으로 옮겨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성의 부정적인 형상인 계모 역할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숲속의 세 난장이 에서는 주인공이 완전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성의 부정적인 측면인 계모가 다시 한 번 등장한다.

이 동화에서 계모는 본인과 자신의 딸에게 결핍된 가정이라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주인공은 계모가 부여한 과제를 완전히 수행하지 않고 왕자가 나타 났을 때 도망치듯이 성으로 떠나 왔다. 이는 부정적인 모성과 주인공이 완전히 분리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자신을 찾아온 계모와 의붓 자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동화에서 죽음은 새로운 부활을 위한 하나의 관문이다. 죽음 이후 주인공은 하얀 오리로 부활을 한다. 계모는 의붓자녀의 자리를 빼앗아 자신의 친 딸에게 주고 주인공 행세를 하게 한다. 그러나 오리로 부활한 오리에 의해 모든 진실은 밝혀지고 주인공은 완벽히 여성으로 성장하게 된다. 주인공의 성숙으로 인해 부정적인 모성인 계모는 완전히 분리 되고 여성과 모성의 역할이 완전히 주인공에게 넘어오게 되자 차별을 모티브로 한 계모의 역할은 불필요하게 되어 죽음이라는 형태로 완전히 사라진다.

2.2. 흘레 할머니

위 동화는 차별을 모티브로 하여 악한 모성의 상징인 계모의 선한 모성의 상징이 극명하게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동화의 도입부는 계모가 의붓 자녀와 자신의 친 자녀를 차별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한다.

어느 과부에게 두 딸이 있었다. 하나는 예쁘고 부지런했지만 다른 딸은 못생기고 게을렀다. 그러나 어머니는 못생기고 게으른 딸이 친 딸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랑했다. 그래서 의붓딸은 부엌데기 노릇을 하면서 온갖 궂은일을 했다. 이 불쌍한 소녀는 날마다 큰 길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손가락에서 피가 날 때까지 실을 자아야 했다.

Eine Witwe hatte zwei Töchter, davon war die eine schön und fleißig, die andere hässlich und faul. Sie hatte aber die hässliche und faule, weil sie ihre rechte Tochter war, viel lieber, und die andere musste alle Arbeit tun und der Aschenputtel im Hause sein. Das arme Mädchen musste sich täglich auf die große Straße bei einem Brunnen setzen, und musste so viel spinnen, dass ihm das Blut

aus den Fingern sprang.⁵⁶⁾

「홀레 할머니」에 등장하는 계모는 친 자녀와 의붓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전형적인 차별의 모티브를 보여준다. 동화 속에서 계모는 못생기고 게으른 자녀가 자신의 친 딸이라는 이유로 훨씬 더 사랑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인공이 친 자녀가 아닌 의붓 자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의붓 자녀가 집안의 온갖 궂은일을 했다고 나타 나 있는 것으로 보아 친 자녀는 가사 노동에서 제외되어 왔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집안의 모든 가사 노동을 맡은 주인공이 어느 날 물레를 우물 속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다. 그녀는 계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계모의 반응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을 것이다.

계모는 화가 난 목소리로 나무라며 냉정하게 말했다.

Sie schalt es aber so herftig und war so unbarmherzig, dass sie sprach.⁵⁷⁾

이 부분이 계모는 주인공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모성의 원형과는 다르다는 것을 홀레 할머니의 등장으로 잘 알 수 있다. 계모는 주인공에게 주인공이 잃어버리는 물레를 찾아오라는 임무를 부여한다. 주인공은 거역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물레를 건지기 위하여 우물 속으로 뛰어 들게 된다. 이 때 주인공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모성의 원형이 발현된다. 우물에 뛰어 든 후 의식을 잃었던 주인공은 깨어 난 후 두 가지의 시련을 거친 후 홀레 할머니의 집에 도달하게 된다. 홀레 할머니 역시 주인공의 계모와 마찬가지로 집안의 가사 노동을 맡겼으나 그 노동의

56) Brüder Grimm von hrg. Heinz Rölleke: a.a.O., S. 145.

57) Ebd., KHM S. 145.

대가와 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계모와 사뭇 다르다.

“무엇을 두려워 하느냐? 나의 집에서 함께 살자. 네가 집안일을 잘 해 낸다면 너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너는 내 침대를 잘 정리하고 열심히 털어서 깃털이 잘 날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깃털을 잘 날려야 세상에 눈이 내린다. 나는 홀레 할머니다”

할머니가 매우 다정하게 권했기 때문에 소녀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다.

“Was fürchtest du dich, liebes Kind? bleib bei mir, wenn du alle Arbeit im Hause ordentlich tun willst, so soll dir’s gut gehn. Du muss nur Acht geben dass du mein Bett gut machst und es fleißig aufschüttelst, dass die Federn fliegen, dann schneit es in der Welt; ich bin Frau Holle” Weil die Alte ihm so gut zusprach, so fasste sich das Mädchen ein Herz, willigte ein und begab sich in ihren Dienst.⁵⁸⁾

주인공의 계모는 자신의 친 자녀와 차별할 뿐만 아니라 소녀에게 다정함도 주지 않은 반면에 홀레 할머니는 가사노동이라는 동일한 임무를 부여 하면서도 다정함을 보여 준다. 또한 주인공은 홀레 할머니에게서 심술궂은 말은 단 한마디도 듣지 않았으며 항상 따뜻한 음식을 맛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주인공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모성의 원형은 따뜻함이다. 그러나 주인공인 소녀는 홀레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이곳이 진실이 아닌 허상인 것 마냥 계모와 지내던 본인의 실질적인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한다. 소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으며 홀레 할머니는 흔쾌히 소녀를 집으로 돌려 보내 준다. 소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58) Ebd., KHM S. 146.

그동안 착한 마음씨와 성실함을 보상 받기라도 한 듯이 온 몸에 황금을 선물 받는다. 부와 명예의 상징인 황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환영을 받는다. 주인공은 홀레 할머니를 만난 일과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계모와 그녀의 친 딸에게 말 하게 된다.

주인공에게 부정적인 모성의 원형으로 나타나던 계모는 자신의 친 자녀에게는 비뚤어진 모성의 원형을 보여준다. 의붓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와 명예의 상징인 황금을 갖게 해 주고 싶었기에 의붓 자녀의 말만 듣고 그 곳이 좋은 곳인지 위험한 곳인지 제대로 판단하지도 않고 홀레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보내고자 하였다. 의붓 자녀가 홀레 할머니에게 가기 전부터 돌아오기 까지 계모는 친 자녀에게는 노동과 대가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한 적이 없었으며 무조건적인 애정과 사랑만 주는 비뚤어진 모성을 보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모는 자신의 친 자녀에게 행운을 얻게 해 주기 위해 첫 임무를 부여 한 것이다. 그것은 일부러 우물가에서 물레질을 하다가 그 물레를 빠뜨리게 한 후에 우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시키는 것이었다. 계모의 친 자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우물 속으로 들어가 홀레 할머니에게서 주인공과 똑같은 임무를 부여 받는다. 계모의 친 자녀는 처음에는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나중에 가서는 점점 임무 수행을 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홀레 할머니는 계모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홀레 할머니는 계모의 친 자녀의 겉모습이나 마음씨와 관계없이 주인공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대해 주지만,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성실함과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차별을 둔다. 홀레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주인공의 의붓 자매에게 황금비 대신 역청을 선물한다.

이 동화에서는 선한 모성과 악한 모성이 홀레 할머니와 계모의 형상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계모의 모성 역시 자신의 친 자녀와 의붓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동화의 서두에서 악한 모성의 상징인 계모는 자신의 친

자녀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 반면에 의붓 자녀에게는 노동만을 부여 하므로 인해 친 자녀는 노동의 부채를 남게 되었고, 의붓 자녀에게는 애정과 노동에 대한 대가의 부채를 남게 되었다. 그러나 홀레 할머니는 두 사람의 외모나 성격에 관계 없이 동등한 마음으로 공정한 노동을 지급 하였고 그녀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인해 주인공에게 결핍되어 있던 애정과 노동의 대가를 주인공의 의붓 자매에게는 노동과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한다.

3. 폭력

그림형제 동화에서 계모는 주인공을 학대하거나 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모성의 본능으로 볼 때 어머니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모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대변하는 계모는 이러한 본능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이야기 속에서 계모가 주인공에게 하는 폭력의 양상을 보면 주인공을 숲 속에 버리거나, 신체적으로 손상을 가하거나 심하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악한 행동을 일삼는다. 그림형제의 『아동과 가정을 위한 동화 Kinder und Hausmärchen』 중 다음 세편의 동화를 통해 계모의 주인공에 대한 폭력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살펴 보자.

3.1. 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 Hänsel und Gretel」은 중세 유럽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민담으로 보여진다.

대부분의 동화 속 상황은 실제 생활에서 닮은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평범하다. 마치 모든 것이 실제인 것처럼 언제나 새롭게 다시 사무쳐 온

다. 부모는 식량이 떨어져 궁핍 때문에 아이들을 쫓아내야 했거나 아이들은 혹독한 계모에게 학대 받는다.

그림형제가 살았던 당시 독일 사회는 산업 발달의 결과로 빈부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다. 59) 이야기의 시작은 주인공의 가족이 가난하여 먹을 것도 없이 지내고 있던 와중에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하루 먹을 빵도 마련할 수 없던 형편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 더 이상 아이들을 먹일 형편이 못 되자 아이들의 계모는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다.

“내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숲 속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일 울창한 곳으로 들어가 불을 지피 주고 빵 한 조각씩 쥐어 준 다음, 애들만 남겨두고 우린 일을 하러 갑시다. 애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면 아이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Wir wollen Morgen in aller Frühe die Kinder hinaus in den Wald führen, wo er am dicksten ist: da machen wir ihnen ein Feuer und geben jedem noch ein Stückchen Brot, dann gehen wir an unsere Arbeit und lassen sie allein. Sie finden den Weg nicht wieder nach Haus und wir sind sie los.”⁶⁰⁾

이러한 계모의 제안에 이들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어떻게 아이들을 숲속에 버릴 수 있느냐며 반대했으나 결국엔 계모의 의견에 동의한다. 다음날 아이들은 빵 한 조각과 함께 숲속에 버려진다. 그러나 전 날 부모의 대화를 들은 헨젤이 전날 미리 주워 놓은 하얀 자갈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표시 해 둔 덕에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온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계모는 아이들의 숲속에 버린 책임을 오

59) 오세진 : 「동화에 구현된 용의 개최화 과정」, 배제대학교 대학원, 2012, 41쪽.

60) Brüder Grimm von hrg. Heinz Rölleke: a.a.O., S. 97.

로지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인다.

“나쁜 녀석들, 숲 속에서 무슨 잠을 그렇게 오랫동안 자는 거냐. 우리는 너희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 하는 줄 알았다.”

“ihr bösen Kinder, was habt ihr so lange im Walde geschlafen, wir haben geglaubt ihr wolltet gar nicht wieder kommen.”⁶¹⁾

반면에 아이들을 숲에 버리고 온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아버지는 아이들을 매우 반가워한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나라 안에 또 다시 굶주림이 찾아왔고, 이들 가정 역시 피해가지 못한다. 아이들의 계모는 또 다시 아이들을 숲속에 버릴 계획을 세운다. 아버지는 이러한 방법이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크게 반대하지도 않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계모는 또 다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번처럼 헨젤이 자갈을 주으러 나갈 수 없도록 문을 잠궈 두는 치밀함도 보인다. 그렇게 아이들은 두 번이나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음으로서 자식들은 부모의 폭력의 희생물이 된다.

주인공인 헨젤과 그레텔은 집으로 돌아 올 수 없게 되었을 때 폭력을 모티브로 한 부정적인 모성이 계모에게서 숲속의 마녀에게로 옮겨 오게 된다. 그러나 동화의 결말 부분에서 헨젤과 그레텔이 마녀를 죽이고 집으로 귀환했을 때 자신들을 숲으로 유기한 계모가 죽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마녀와 계모는 한 인물이었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⁶²⁾ 그렇기 때문에 헨젤과 그레텔을 향한 마녀의 비정상적인 폭력적인 행태를 간과할 수 없다.

61) Ebd., KHM S. 97.

62) 아버지는 아이들을 숲에 버리고 온 후 살아가는 것이 전혀 즐겁지 않았다. 그 동안 계모는 죽고 없었다. Der Mann hatte keine frohe Stunde gehabt, seitdem er die Kinder im Walde gelassen hatte, die Frau aber war gestroben. (Ebd., KHM S. 104.)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되고 그 곳에서 마녀를 만나게 된다. 마녀는 겉으로는 착한 할머니 같았으나 사실은 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해 노리는 나쁜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할머니는 가는 손으로 헨젤을 움켜 쥔 후 그를 작은 우리에 끌고 가서 가두어 놓는다. 그 다음 할머니는 곧히 자고 있는 그레텔을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다.

“일어나거라 게으른아이야, 물을 길어서 네 오라버니에게 맛있는 것을 요리해 주도록 하여라. 네 오라버니는 바깥 우리에 갇혀 있다. 네 오라버니가 살이 썩면 잡아먹을 것이다.”

Da packte sie Hänsel mit ihrer dünnen Hand und trug ihn in einen kleinen Stall und sperrte ihn mit einer Gittertüre ein; er mochte schreien wie er wollte, es half ihm nichts. Dann gieng sie zur Gretel, rüttelte sie wach und rief "steh auf, Faulenzerin, trag Wasser und koch deinem Bruder etwas gutes, der sitzt draußen im Stall und soll fett werden. Wenn er fett ist, so will ich ihn essen."⁶³⁾

마녀는 잡아 먹기 위해 헨젤만을 가둬 두었으며 그레텔은 집안에서 일을 하도록 과제를 부여한다. 바깥에서 자기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헨젤은 배경이 집이라는 공간으로 변화하자 우리에 갇히게 되면서 아버지와 같이 무력한 남성으로 변화한다. 남성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인 그레텔은 기지를 발휘하여 오라버니를 구해내고 부정적인 모성의 마녀를 물리치게 된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녀와 계모는 동일인물임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마녀의 죽음으로 인해 부정적인 모성은 이야기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러나 헨젤과 그레텔은 스스로 생존 할 수 없는 성장하지 않은 어린 아이다. 이때 선한 모성의 형상인 동

63) Ebd., KHM S. 102.

물들의 도움⁶⁴⁾으로 헨젤과 그레텔은 집으로 귀환한다.

3.2. 오누이

1810년 초판본에서는 오누이를 괴롭히는 계모는 등장하지 않는다. 계모가 저주를 걸어 놓은 샘 역시 원래부터 마법의 샘 이었다.

「오누이 Brüderchen und Schwesterchen」에서는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야기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우리는 좋은 시간이 하나도 없다. 계모는 매일 우리를 때리고, 우리가 곁에 가면 발로 차서 내쫓거나 한다. 남아 있는 딱딱한 빵 부스기가 고작 우리가 먹일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다. 식탁 아래에 앉아 있는 개도 우리보단 낫다.

“seit die Mutter tot ist, haben wir keine gute Stunde mehr; die Stiefmutter schlägt uns alle Tage, und wenn wir zu ihr kommen, stößt sie uns mit den Füßen fort. Die harten Brotkrusten, die übrig bleiben, sind unsere Speise, und dem Hündlein unter dem Tisch geht’s besser: “⁶⁵⁾

여기서 우리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오누이는 계모의 학대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오게 된

64) 위대한 자연 모성 자신이 동물로 등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녀는 그야말로 동물적이고 식물적인 생산성 그 자체로 존재한다. 위대한 여신의 작용에 의하여 식물과 동물들이 번식한다. 지빌레 비크오이저-웨어 : 『민담의 모성상』, 이유헌 옮김, 분석심리학연구소, 2003. 82쪽. 재인용. 모성은 모든 본능의 삶, 생명 그 자체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모성의 힘을 알리고, 살아있는 모두는 하나의 생명을 나눈 것이다. 따라서 이집트의 이시스(Isis)도 생식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그곳이다. 근원적 모성은 자연의 신적인 것과 동시에 동물의 총체적 발전을 《알리는》 미지의 총동으로 드러나는 힘을 구체화 한다. 지빌레 비크오이저-웨어 : 위의 책, 82쪽.

65) Brüder Grimm von hrg. Heinz Rölleke: a.a.O., S. 77.

다. 보통의 동화에서 계모의 역할은 아이들이 집을 떠나는 순간 끝나게 된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 동화는 아이들이 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모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시련을 안겨준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숲은 모성의 한 계모인 그녀는 마녀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떠나는 것을 훤히 볼 수 있었으며, 아이들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가 숲 속의 모든 샘플마다 마법을 걸어 놓는다.

계모는 오누이가 행복하게 잘 지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질투와 시기심이 생겨나 아이들을 불행에 빠뜨릴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여기서 또 다른 폭력의 형태인 정신적인 폭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계모에게는 친 딸이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지게 된 것이다. 이야기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초기에 오누이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던 좋은 음식들과 애정은 계모의 친 딸에게는 제공되었을 수도 있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계모와 그녀의 친 딸은 오누이가 갖게 된 복은 자신들의 것이어야만 했다며 그들이 갖게 된 복을 빼앗기 위해 시녀로 변장하여 왕비가 된 주인공에게 다가가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

그들은 약한 왕비를 욕실로 운반하여 욕조에 얹혀 놓고는 문을 닫고 도망쳤다. 그러나 지옥의 유희불처럼 뜨겁게 불을 지펴 놓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젊은 왕비는 피어오르는 김으로 인해 이내 질식해서 죽고 말았다.

sie trugen die schwache Königin in die Badstube und legten sie in die Wanne: dann schlossen sie die Tür ab und liefen davon. In der Badstube aber hatten sie ein rechtes Höllenfeuer angemacht, dass die schöne junge Königin bald ersticken musste. ⁶⁶⁾

주인공은 죽음 이후 자신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영혼의 형태로 나타나 폭력의

66) Ebd., KHM S. 82.

양상을 보인 계모와 대변되는 모습을 보여 부정적인 모성인 계모의 악한 행동을 더욱 극대화 시킨다.

3.3. 노간주나무

주인공의 어머니는 주인공을 낳자마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곧이어 주인공의 아버지는 새로운 부인을 얻게 되고 그 사이에 딸을 낳게 되는데 이때부터 주인공과 계모 사이의 갈등은 시작된다. 첫째 부인에게 얻은 아들인 주인공이 자신의 딸의 앞길에 방해가 될 것 이라 생각한 주인공의 계모는 마음속으로 주인공을 증오한다. 또한 주인공만 없다면 모든 재산은 자신의 딸의 것이라는 욕심의 마음도 주인공을 증오하는 또 다른 이유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계모는 증오심이 발동하여 아래와 같이 주인공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부인은 소년을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떠밀었고, 여기서 한 대 갈기는가 하면 저기서 찰싹 올려붙였다.

..()...un de Böse gaf her dat in, dat se dem lüttjen Jung ganß gramm wurr un stödd em herüm von een Eck in de anner;un buffd em hier un kunffd em door, so dat dat aarm Kind jümmer in Angst wöör.⁶⁷⁾

계모의 의붓자녀에 대한 마음은 단순히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살해의도로 까지 이어진다. 그녀는 아들에게 사과를 주겠다며 유혹한 뒤 사과를 직접 꺼내 먹도록 유도한다.

어린 소년이 몸을 굽히자 어서 뚜껑을 닫으라고 악마가 속삭였다. 황! 소

67) Ebd., KHM S. 231.

년의 목이 날아가 붉은 사과 사이로 떨어졌다.

Un as sik de lüttje jung henin bückd, so reet e hr de Böse, bratsch!
 slöög se den Deckel to dat de Kopp afflöög un ünner de roden Appel
 füll. 68)

계모는 아들을 살해한 것을 숨기기 위해 죽은 아들을 의자에 앉힌 후 머리를 다시 목 위에 올려놓고 손수건을 감아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게 만들었다. 또한 그녀는 시신을 토막 내어 음식으로 만드는 극악무도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폭력성의 극치를 보여주었으며, 자신의 친 딸마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 까지 한다.

“ 대답을 하지 않으면 뺨을 때리거라!”라고 그녀의 엄마는 말했다.

마들렌은 다시 가서 말을 했다.“오빠, 사과 좀 줘.”

그가 대답을 하지 않자 마들렌은 그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오빠의 머리가 땅으로 떨어졌다. 소녀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말했다.

“ 엄마, 제가 오빠의 머리를 부러뜨렸어요.”소녀는 진정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였다.

“마들렌.”어머니가 말했다.

“ 무슨 일을 한 거니?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가만히 있어라. 달리 방법이 없구나. 그를 끓여 스프로 만들자.”

“unwenn he dy nich antworten will, so gif em eens an de Oren.” Do güng Marleenken hen un säd, “Broder, gif my den Appel.” Awerst he sweeg still, do gaf se em eens up de Oren, do feel do Kopp herünn, doräwer vörschrock se sik un füng an to wenen un to roren, un löp to erer moder un säd “ ach, Mother, ik

68) Ebd., KHM S. 232.

hebb mynem Broder den Kopp afslagen”, un weend un weend un wull sik nich tofreden gewen. swyg man still, dat et keen Mensch maakt, dat is un doch nich to ännern; wy willen em in Suhr kaken“⁶⁹⁾

이로 인해 계모의 친 자녀는 살해의 직접 가담자가 되었으며, 계모는 자신의 살인 사실을 덮기 위해 친 자녀를 살인자로 만드는 도덕적 폭력을 가한다. 본의 아니게 자신의 오빠를 살해하게 된 소녀는 죄책감에 하염없이 울기만 한다. 계모는 돌아와서 아들을 찾는 남편에게 아들은 친 어머니의 핏줄인 외삼촌 집에 놀러 갔다며 거짓말을 한다. 이러한 거짓말로 인해 계모는 의붓 자녀를 살해한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친 자녀에게도 정신적인 폭력을 가한다.

계모는 죽은 아들로 요리한 음식을 가족들에게 먹게 하였으며 이로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죄책감과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소녀는 바닥에 떨어진 오빠의 뼈들을 모아 손수건에 싸서 노간주나무 아래에 가져다 놓는다. 그 후 뼈들은 사라지고 노간주나무에서 조그마한 새가 나타나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우리엄마는 나를 죽였고,
 우리아빠는 나를 먹었다.
 동생 마들렌은
 내 뼈를 모두 찾아
 비단 천에 감싼 후
 노간주나무 아래 놓아 주었다.
 짹 짹 나는 정말 예쁜 새다.

69) Ebd., KHM S. 232-233.

"mein Mutter der mich schlacht,
mein Vater der mich aß,
mein Schwester der Marleinichen
sucht alle meine Benichen,
bind't sie in ein seiden Tuch,
legt's unter den Machandelbaum.
Kywitt, kywitt, wat vör'n schön Vagel bün ik!"⁷⁰⁾

새가 부르는 노래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으며, 진실의 노래를 여러 사람이 알게 될수록 계모는 점점 더 두려움에 떨게 된다. 마침내

이 동화에서는 주인공이 자신과 자신의 동생에게 행한 폭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벌을 가하면서 마무리 된다.

70) Ebd., KHM S. 234.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그림형제의 『아동과 가정을 위한 동화』를 통해 계모 Stiefmutter의 부정적인 모습과 그에 대비되는 모성의 긍정적인 모습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고찰하고 동화가 아동을 위한 교육 지침서로서의 역할이 가능한지 분석해 보았다.

계모가 등장하는 동화가 그러 하듯이, 갈등의 시작은 친모의 부재에서 시작한다. 그림동화에서 친모가 부재하여 계모의 등장하는 경우는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친모가 죽은 뒤에 계모가 등장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계모가 등장하는 경우이다. 동화 「백설공주」와 「신데렐라」에서는 친모의 죽음 후에 계모가 등장함으로써 완만하게 갈등구조가 그려지지만, 반면에 「하얀신부 검은신부」, 「헨젤과 그레텔」에서는 처음부터 계모가 등장함으로써 처음부터 긴장된 갈등구조를 갖는다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동화에서 계모는 주인공인 의붓자녀와 갈등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친모의 부재로 인해 주인공에 대한 양육의 의무는 계모와 그 친부에게 부여 되지만, 친부의 등장은 극히 미미하여 동화의 진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의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계모가 마녀인 경우이다. 동화 「오누이」, 「수수께끼」, 「여섯마리 백조」, 「하얀신부 검은신부」, 「어린양과 물고기」가 여기에 속한다. 갈등 구조는 시어머니가 계모인 경우에도 형성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동화는 「열두왕자」이다. 그런데 심각한 갈등구조는 계모가 본인의 딸에게 더욱 사랑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의붓 자녀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케이스이며 이들 작품 속에서는 갈등의 강도가 가장 깊어진다. 여기에 속하는 예로는 「숲속의 세 난장이」, 「신데렐라」, 「홀레할머니」, 「노간주나무」, 「사랑하는 롤란트」, 「진짜신부」를 들 수 있다.

계모의 악행에는 몇가지의 부정적인 모성애가 주요 모티브로 작용한다. 의붓 자

녀에 대한 계모의 악행의 모티브는 시기와 질투, 차별, 폭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기와 질투에 대한 모티브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동화로는 「백설공주」, 「검은신부 하얀신부」, 「신데렐라」를 들 수 있는데, 이들 동화에서 드러난 계모의 의붓 자녀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며, 행위의 결과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백설공주」에서는 의붓 자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하는 감정이 드러난다. 백설공주에 대한 왕비의 살해 시도는 단순히 아름다움에 대한 질투가 그 동기이다. 그런데 「신데렐라」와 「하얀신부 검은신부」의 시기와 질투의 모티브 형태는 비슷하나 질투의 구체적 대상과 그 표출 방법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인다. 두 동화에서 계모는 자신의 자녀보다 미모와 성품이 더욱 뛰어난 의붓 자녀에 대해 시기와 질투를 하며, 특히 여기에서는 성품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묘사되고 있다. 「신데렐라」와 「하얀신부 검은신부」에서의 악행은 주로 주인공의 의붓 자매들에 의해 드러난다는 특성을 보이는데, 계모가 신데렐라에게 갖는 질투의 감정은 결국 자신의 친 자녀들이 신데렐라에게 행하는 악행을 방관함으로써 계모의 친자녀들이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로 차별의 모티브가 등장하는 동화는 「숲속의 세 난장이」와 「홀레 할머니」이다. 두 편의 동화에서는 악한 모성과, 선한 모성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숲속의 세 난장이」는 의붓자녀 보다는 외모가 못났지만 자신의 친 딸을 우위에 두고 더욱 사랑한 나머지 의붓자녀를 자신의 친 자녀를 차별하는 계모의 부정적인 모성의 상징이다. 계모가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유령의 형태로 등장하기까지 한다는 특성이 있다. 「홀레 할머니」에서는 계모가 자신의 친 자녀와 의붓자녀를 차별 대우 하지만, 동화속의 홀레 할머니는 선한 모성의 상징으로서 그들의 성품이나 외모에 관계없이 똑같은 대우를 한다는 점에서 계모와 홀레 할머니를 선과 악의 음역을 분명하게 대비시키는 구조이다.

세 번째로 폭력의 모티브가 등장하는 동화는 「헨젤과 그레텔」, 「노간주나무」

그리고 「진짜신부」가 있다. 이 세편의 동화에서는 폭행은 각각 유기, 학대, 살해의 세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헨젤과 그레텔」에서의 폭력의 형태는 유기이다. 「헨젤과 그레텔」의 계모는 어려운 가정사를 이유로 형제를 아버지의 묵인하에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고 계모에 의해 숲으로 유기 된 후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에서 각종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는 마녀인 계모의 계략이다. 또한 각종 사건을 해결하고, 마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성공시키고, 헨젤과 그레텔은 친 아버지와 상봉한다. 동화 「헨젤과 그레텔」은 그림형제가 수집할 당시에는 형제를 숲속에 유기하자고 주장한 사람은 친모였으나, 그림형제가 계모로 바뀌었다는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아동의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음을 의미한다. 「노간주나무」에서는 폭력의 형태가 최고조에 이른다. 계모는 의붓자녀를 살해하고 게다가 자신의 친 자녀에게 그 살인 누명을 뒤집어씌우며, 죽은 의붓자녀를 친 자녀 앞에서 요리로 만드는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인다. 다른 동화에서 자신의 친 자녀를 의붓 자녀보다 더 위하여 자녀들을 차별대우 하는 모습과는 대비된다. 「진짜신부」에서는 폭력의 형태가 극심한 학대로 설정된다. 계모가 의붓자녀를 어떻게 하면 더 혹독하게 괴롭힐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선한 모성의 늙은 부인의 보조역할로 악과 선을 대비시키고 있다. 계모는 주인공을 노동력으로 학대하는 악한 모습을 보인다. 그 결과 계모가 부여한 과제는 주인공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게 된다는 교훈적 요소도 들어있다.

그림동화에서는 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모티브를 통하여 계모의 만행이 자행되지만, 역경 속에서도 주인공이 긍정적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의지의 힘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점에 있어서 특히 교훈적이다. 그림동화는 악한 모성의 상징인 계모와 선한 모성의 상징들과의 끊임없는 대립을 통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며 독자를 이끌어간다. 위에서 설명한 몇가지의 폭력을 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긴장과 분노를 느끼게도 하는데, 이러한 선악의 대립적 환경에 권선징악의 요

소를 참가하고 있다. 그림동화가 교훈적이라는 점을 언급했지만, 그 보다 더욱 뛰어난 것은 작품성이다. 위에 설명한 여러 가지 모티브를 통한 긴장과 스릴 그리고 분노와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훌륭한 작품성으로 인하여 오늘 날까지 계속해서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

참고문헌

일차참고문헌

Brüder Grimm: Kinder- und Hausmärchen Ausgabe letzter Hand mit den Originalanmerkungen der Brüder Grimm, Reclam, Stuttgart, 2010.

그림형제: 그림형제 민담집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 김경연 옮김, 현암사, 2012.

이차참고문헌

김성곤 : 독일문학사, 글로벌콘텐츠, 2011.

김정철 : 허구의 문학 사실의 문학 그림형제 동화, 대구, 2008.

뤼디거 자프란스키 : 낭만주의 판타지의 뿌리, 임우영 외 옮김, HUFS BOOKS, 2012.

브르노 베텔하임 : 옛이야기의 매력 The Uses of Enchantment 1.2., 김옥순, 주옥 옮김. 시공주니어 2013.

블라디미르 프로프 : 민담형태론, 유영대 옮김, 세문사, 2007.

오이겐 드레버만 : 어른을 위한 그림동화 심리 읽기, 김태희 옮김, 교양인, 2013.

장남준 : 독일낭만주의연구, 나남, 1989.

지벨레 비르크호이저-웨어 : 민담의 모성상 Die Mutter im Märchen, 이유경 옮김, 분석심리학연구소, 2012.

최문규 : 독일낭만주의, 연세대학교 출판부, 1955.

최연숙 : 민담·상징·무의식,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카트란 궤계 알더 : 민담, 그 이론과 해석, 이문기 옮김, 유로서적, 2009.

- 켈빈S 홀, 버논 J. : 융 심리학 입문 A Primer of jungian psycholigy, 김형섭 옮김, 문예출판사, 2013.
- 페터 브렌너 : 신독일문학사, 정인모, 허영재 옮김, 세문사, 2008.
- C.G.Jung : 원형과 무의식 Grundwerk C.G.Jung Archetyp und Unbewußtes,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솔, 2003.
- C.G.융 · C.S.홀 · J.야코비 : C.G 융 심리학 해설, 설영환 옮김, 선영사, 2014.
- V. Y.프로프 : 민담의 역사적 기원, 최애리 옮김, 문학과 지성사, 1990.

참고논문

- 김경화 : 동화에 나타난 무의식 연구 - Grimm동화를 중심으로 -, 경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정철 : 독일민족에게 있어서 그림형제 동화의 가치, 독일문학 제67집, 1998.
- _____ : 한국 동화와 독일 동화에 묘사된 가족관 비교, 독일언어문학 제28집, 2005.
- 김진향 : 융의 분석심리학 관점에서 본 모성콤플렉스에 대한 연구 -모성원형과 관련하여-,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대환 : Grimm 동화에 있어서 여성인물의 특성, 독어교육 제 18집, 1999.
- 오세진 : 동화에 구현된 융의 개체화 과정, 배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오진령 : 『콩쥐 팥쥐』에 나타난 모성 콤플렉스와 개성화 과정에 대한 연구,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2012.
- 장영은 : 어린이를 위한 독일 메르헨-아동문학으로서의 독일 메르헨에 대한 역사적 고찰,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Vol.16, 2007, 395-414쪽.
- 조수미 : 그림형제 동화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구조연구 : 현실세계와 환상세계를 축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Ina Brandenburg : Zur Figur der Stiefmutter in den Kinder- und Hausmärchen der Brüder Grimm, Bachelorarbeit, München., 2009.

Sabrina Brin: Die Stiefmutter . Mutter und die Hexe in 'Hänsel und Gretel'-Eine Untersuchung, Studienarbeit, München, 2008.

Sigrid Susanne Drinberger: Die Figur der Stiefmutter in den Grimmschen Märchen. Diplomarbeit, Wien., 2009.